

특화 콘텐츠 발굴로 전라감영 가치 높인다

전주시, '전라감영 콘텐츠 조성 방향 설정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가져 볼거리·먹을거리·놀거리·체험거리·총괄 집강소 등 운영 활용방안 논의

전주시가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 체험거리 등 전라감영만의 특화 콘텐츠 발굴에 나섰다.

시는 16일 원도연 원광대학교 교수와 송영애 전주대학교 교수, 장은영 작가, 김순석 전주전통문화연구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감영 콘텐츠 조성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복원된 전라감영은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등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실감형 콘텐츠와 해설투어, 전라감영 보물찾기, 미디어파사드 등 역사와 문화를 담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나, 관광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전라감영만의 특화된 문화유산 활용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볼거리 집강소(전시 등) ▲먹을거리 집강소(발효식품 등) ▲놀거리 집강소



전주시는 16일 원도연 원광대학교 교수와 송영애 전주대학교 교수, 장은영 작가, 김순석 전주전통문화연구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감영 콘텐츠 조성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놀이, 음악, 춤) ▲체험거리 집강소(놀이, 음악, 춤) 등 5가지 집강소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안)을 마련했다. /김윤상 기자

시는 또 다양하고 참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공모는 ▲테마형·복합형 관람·체험 프로그램(아간관람, 숙박체험, 전통문화체험 등과 연계) ▲전통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 ▲전라감영 활용 상품 개발 및 판매 등 3개 유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향후 시는 전라감영에 관한 체계적인 활용 프로그램을 구축해 조선시대 지방 통치행정기구로서의 정체성을 보다 확실히 정립하고, 전라감영의 가치를 높여나가는 계획이다. 나아가 서숙·남죽 부지에 대한 복원 방안에 대한 논의에도 불을 붙일 방침이다.

조문성 전주시 전통문화유산과장은 "한옥마을과 전라감영을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다양한 볼거리와 콘텐츠로 구성됐으면 하는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자문회의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관광객들이 전주를 다시 찾고, 전라감영 복원의 가치와 그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구축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지원

전주농기센터, 9700만원 투입 배 재배 농가 133곳에 공급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는 배 과수원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 9,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배 재배 농가 133곳(144ha)에 사전 방제약제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배와 사과에서 발생하는 과수화상병은 주로 식물의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에서 병반이 나타나고, 새순이나 가지가 구부러져 흑색으로 말라 죽는 증상을 보인다. 주로 꿀벌·파리류 등 곤충과 비·바람 등 기상환경, 불건전 치목 등을 통해 확산되며, 아직까지 치료방법이 없어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시는 3월 하순부터 4월 중순까지 개화 전 방제(1회)를 실시하고, 4월 상순부터 중순까지 1~2회 추가 방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방제약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또 과수화상병에 대한 사전 방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문자 안내, 현수막 게시, 농업인 교육 등을 통한 홍보와 과수원 예찰 활동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배 농가에서는 과수화상병을 막

기 위해 ▲곤충류의 이동차단 ▲사전방제 실시 ▲출처 불분명 묘목 반입 금지 등 자체 예방수칙을 강화해야 한다.

또 사람에 의한 전파가 주된 확산경로라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외부인과 발생지역의 농작업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하고,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농작업 도구들은 알코올, 락스 등으로 소독해야 한다. 농가에서 과수화상병 의심주를 발견했을 때에는 농가신고제 대표 전화(1833-8572)로 신고하면 된다.

황권주 소장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사전 약제방제와 농가별 농작업 도구소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초기방제로 지역 내 과수 농가들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수화상병은 2015년 경기도 안성에서 처음 발견된 후 현재까지 전국에서 1092농가, 655ha에 걸쳐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는 전북에서도 과수화상병이 처음 생기는 등 전국 744농가, 395ha에 발생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농기센터, 중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추진

전주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농기계 구입을 지원한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는 이달 말까지 총 6,700만원을 들여 중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농기계 구입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중 500만원 이하의 중소형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으로, 총 88대가 지원될 예정이다.

중소농가와 여성농업인, 전주시조합 공동사업법인에 출하하는 농업인이 우대됐으며, 최근 3년간 보조금 수혜 불가능한 제외됐다.

지원 농기계는 건조기, 관리기, 원판쟁기 등 9종 38대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비가 지원된다. 단, 원판쟁기의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50%까지 지급된다.

시는 중소형 농기계 구입을 지원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덜어주고, 노후된 농기계를 교체함으로써 농작업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주거 취약계층 주거복지·민생경제 분야 맞춤형 이동상담소 운영

7개 기관 참여 전문 상담 진행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 취약계층에 주거복지, 금융, 법률 등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

시와 전주시 주거복지협의체 공동주관으로 16일 전주지역자활센터 교육장에서 주거복지 및 민생경제 분야 맞춤형 이동상담소를 운영했다.

맞춤형 이동상담소에는 ▲LH 전북전주권 마이홈센터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률상담터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신한은행 전북금융센터 ▲전주지역자활센터 ▲전주시 주거복지과 등 7개 기관이 참여해 주거복지와 금융, 재무, 법률 등 민생경제 분야 전문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관련 종합상담과 주거급여, 주택비우체 등 주거안정자금 지원사업, 노후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긴급 주거복지 지원사업 등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해 집중 안내했으며, 생활 법률상담 및 금융지원 상담, 부채상담 등도 제공했다.

시는 이날을 시작으로 분기마다 맞춤형 이동상담소를 순회 운영할 계획으로, 상담을 통해 공공·민간 자원과의 연계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맞춤형 이동상담소 운영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 및 민생경제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해 제도적으로 공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 안정 및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승화원, 청명·한식 기간 개장 유골 화장 확대

전주승화원이 청명·한식을 맞아 개장 유골 화장 횟수를 늘린다.

16일 전주시설공단(이사장 백순기)에 따르면 전주승화원은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청명·한식을 전후로 총 3일을 특별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유골 화장 예약 기수를 20~40기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한식 당일인 5일은 하루 유골 화장에 최대 40기를 운영할 예정이다. 평일 개장 유골 화장 건수 3건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오전 8시부터 모든 화

장을 풀가동해 이용객 불편을 해소한다는 게 공단의 방침이다.

개장 유골을 화장하기 위해선 사전에 묘지 소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개장 신고를 하고 개장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e-하늘' 예약시스템을 통해 화장 14일 전 예약을 하면 된다.

개장 유골 화장 이용료는 전주·완주 소재가 2만8,000원, 도내 타시·군이 9만원이다. 효자공원묘지 소재 개장 유골의 경우 화장 이용료가 전액

감면되며, 자연장을 포함한 봉안시설 사용료도 50% 감면된다.

한식은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4대 명절 중 하나다. 산소에 손을 대도 닿지 않는 날로 여겨 산소에 잔디를 새로 입히거나 비석을 세우고, 이장을 한다.

백순기 이사장은 "청명·한식 기간 개장 유골 화장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시행되고 있는만큼 승화원 방문 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방문 인원도 최소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아파트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확대

전주시, 쉼터·에어컨 설치 지원비 확대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전주시가 아파트 경비원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폭언·폭행 등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한 데 이어 쉼터와 에어컨 설치 지원 등 근무환경 개선에도 공을 들인다.

시는 공동주택 경비원들을 위한 쉼터와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주시 주택조례 및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사기준을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현재 지원금액인 2,000만원의 경우 50만 이상 15개 기초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기준 상향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경비원 쉼터 및 에어컨 설치 시 입주자들의 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종전보다 1,000만원을 늘려 3,000만원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또 쉼터가 미비한 모든 단지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용검사 후 20년이 지나야 했던 경과기간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자

경비원 쉼터 및 에어컨 설치 지원을 원하는 단지의 경우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안산구, 덕진구 건축과에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코로나19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고 없는 도시' 운동을 아파트 경비원 분야까지 유지하는 한편 전주시청과 양 구청에서 운영 중인 아파트 근로자 인권 보호 신고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신고센터에서는 피해자 면담과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조사, 법률 대응 등을 하고 있다.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인권보호와 고용 유지 뿐만 아니라 다니고 싶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근로자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근무하는 것이 결국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만큼 인권 증진을 위한 시민들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